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2021년도 제2회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9일 서울 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음.

2. 편성사유

-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업 집행현황 재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취소 및 축소·변경이 필요한 사업(국외업무여비)을 발굴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대변인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이 감액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감률(%)
일반회계	계	1,576	1,621	△45	△2.8%
	행정운영경비	225	225	-	-
	사업비	1,351	1,396	△45	△3.2%

나. 사업별 검토의견

- 동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에서 불용될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감추경하는 것으로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에서 4천 5백만원을 감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은 출입기자의 취재환경 제공으로 시정관련 긍정정보도를 유도하고, 서울시 대표단의 해외순방시 동행 언론사 취재지원, 외신인터뷰 등을 추진하여 순방성과를 높이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3년간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부터 전체 예산의 1%만 집행되었으며, 집행액(43만 7천 원)은 미국 순방(2020.1.7.~1.16.) 준비기간인 2019년 12월에 집행된 것으로 순방기간 중 수행 직원들이 현지공항에서 사용한 수하물 비용에 그침.

<최근 3년간 국외여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예 산 액	계	45,000	60,000	222,173	97,000
	대변인	45,000	60,000	60,000	50,000
	포괄예산	-	-	162,173	47,000
집 행 액	계	-	437	222,171	94,910
	대변인	-	437	60,000	49,815
	포괄예산	-	-	162,171	45,095
	집행률	-	1%	99%	98%

또한 '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75% 수준인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마저도 불용이 예상되어 결국 전액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조치는 서울시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 중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에 대한 감액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대변인 조직은 1담당관, 7개 팀(정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서울시정 홍보 및 보도기획 등을 주요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마다 예산편성 변동 폭이 크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이례적인 상황임.

금번 대변인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4천5백만원이 감액된 15억 7천5백만원이며

이는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업무여비를 일괄적으로 감추경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조기 편성·집행과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바,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함.

다만 국내·외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취재활동 지원성과가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시정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박지혜 조사관	02-2180-8117
---------	--------------